

삶과 꿈

Life & Dream

글. 정이숙 Jeong, Yisuk | 카피라이터 | (주)프랜티브 이사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 노인이 죽은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을 들여다 보고 있다. 손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있다. 다른 노인은 의사가 보여주는 자신의 방사선 사진을 본다. 심각해 보이는 사진, 의사는 아마 암이라는 설명을 하는 것 같다. 그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앞머리를 쥐어 뜯으며 오열한다. 세 번째 노인은 수 십 알의 약을 손에 들고 '이걸 다 어떻게 먹나'하는 표정으로 망연자실 하고 있다. 네 번째 노인은 친구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털썩 주저 앉는다.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 속 죽은 친구의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죽었다는 표시를 한다. 2011년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대만의 한 은행광고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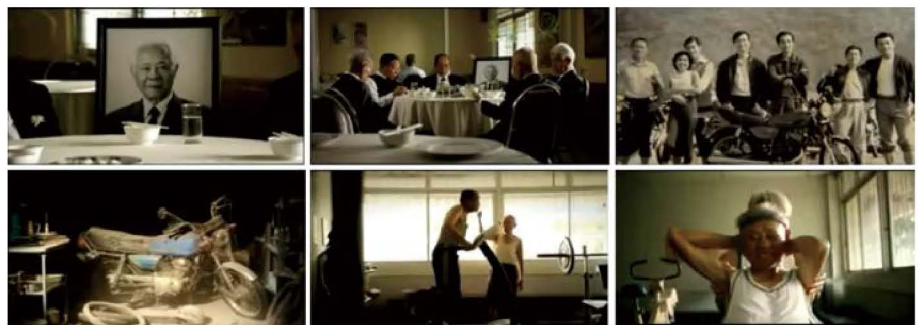


대만 대중은행 2011년 TV-CM 스토리보드 1

죽은 사람을 포함해서 여섯 명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다. 젊고 힘이 넘쳤던 그들은 20대에 모두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를 여행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여든을 넘긴 할아버지가 되었다. 평균 나이 81세, 누구는 암, 누구는 심장질환 그리고 대부분 관절염을 앓고 있다. 바다에 함께 간 여자 친구였던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한 친구가 먼저 하늘 나라로 갔다. 그 친구의 장례식에 남은 다섯 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서...

상가에서 밥을 먹는 것은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마찬가지로인지, 장례식장의 원형 식탁에 다섯 명의 노인이 앉아 힘없이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손을 떨며 침묵 속에 음식을 집는다. 죽은 친구는 액자 속 사진으로 남아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노인이 젊은 시절 죽은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다. 스무 살 시절 바다 여행 때 일곱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노인이 정적을 깨며 '오토바이를 타러 간다!'라고 소리친다. 청춘의 그 때처럼 다시 여행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들의 오토바이는 벌써 수 십 년 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었다. 그 오토바이를 다시 꺼내 먼지를 털고 정비를 했다. 그리고 몸을 의지하던 지팡이를 팽개치고, 팔뚝에 꽂힌 링거를 뽑아 버리고, 알약을 내던졌다. 대신 6개월 동안 러닝머신에서 뛰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팔과 다리의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웠다.



대만 대중은행 2011년 TV-CM 스토리보드 2

마침내 오토바이를 타고 과거 사진 속의 장소를 향해 떠난다. 한 오토바이 뒤에는 죽은 친구의 사진을 실었고, 다른 오토바이 앞에는 죽은 아내의 사진을 붙여 놓았다. 다섯 명의 노인들은 13일 동안 대만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1,139km를 달렸다. 당연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길에서

먹어야 할 때도 있었고, 바퀴가 펑크 나기도 했고, 밤길을 달려야 할 때도 있었다. 한 사람이 지쳐서 헐떡이면 멈추어서 부축했다.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고 팔뚝에 붕대를 감으면서도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대만 대중은행 2011년 TV-CM 스토리보드 3

결국 그 옛날의 바닷가에 닿았다. 광고는 젊은 청년들이 해변에서 뛰노는 모습과 노인들이 같은 바닷가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교차로 보여준다. 몸은 늙었지만 그들의 우정과 웃음은 변함없이 힘차고 아름답다. 거의 60년 전 일곱 명의 청춘이 찾았던 바다에 다섯 명의 할아버지와 두 명의 사진이 함께 섰다. 그들은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수평선 위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다. 백발이 된 그들은 묻는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대답한다. 바로 ‘꿈’이라고.



대만 대중은행 2011년 TV-CM 스토리보드 4

광고의 카피를 음미해 보자.

NA)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먼저 떠난 이를 위해?
 계속 살기 위해?
 더 오래 살기 위해?
 떠나기 위해서?

노인1) 오토바이를 타러 간다!

노인2) 예?

NA) 한 명은 청각장애가 있고
 한 명은 암에 걸렸고
 세 명은 심장 질환이 있고
 모두가 관절염에 시달리지만
 6개월간의 준비 끝에
 대만을 13일간 여행하다.
 1,139km를 달려
 북에서 남으로
 밤낮을 달려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마침내 바닷가에 닿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본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막) 꿈
 특별한 꿈을 꾸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대만 대중은행 2011년 TV-CM 카피)

3분이나 되는 긴 시간이라 영상도 카피도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하고 있다. ‘특별한 꿈을 꾸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라는 은행의 슬로건이 마음에 와 닿는다. ‘대중’은행이라는 이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슬로건이다.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특별한 꿈을 한가지씩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가.

다른 나라의 광고 한 편이 여러 가지 상념에 들게 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사

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옳은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

거치른 별판으로 달려가자

친구와 꿈을 소재로 한 광고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2004년 전파를 탔던 교보생명 광고다. 광고는 경기불황으로 고개를 떨군 한국 남자의 모습과 그래도 꿈을 잃지 말고 헤쳐 나가자고 위로하는 친구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다.

어둡한 뒷골목을 두벅두벅 구두 발자국 소리를 내며 두 남자가 걷고 있다. 한 사람은 축 처진 어깨로 땅만 바라보며 걷는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지도 모른다. 어렵게 꾸려오던 사업을 접게 되었을 수도 있다. 결재할 것들이 태산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 당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 말없이 걷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깊은 절망과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진다.

옆에서 걷는 친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고 팔을 들었다가 허공에서 그냥 거두고 만다. 그



교보생명 2004년 TV-CM 최민식편 스토리보드

리고 잠깐 서서 남자의 뒷모습을 저다 본다. 그러다가 급히 걸음을 옮겨 고개 속인 남자 앞에 선다.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를 부른다. ‘거치른 벌판으로 달려가자~’ 그들이 젊었을 때 자주 들었을 가수 김수철의 ‘젊은 그대’의 한 소절이다. 친구의 노래에 고개 속였던 남자는 웃고, 친구도 눈물기가 배인 너털웃음을 웃는다. 그리고 서로 어깨동무를 한다.

카피도 영상 만큼 아주 단순하다.

최민식 노래) 거치른 벌판으로 달려가자~
 SONG) 젊은 그대 잠 깨어 오라 아아~
 NA) 마음에 힘이 되는 친구의 노래처럼, 교보생명
 자막) 소중한 꿈이 이어지는
 KYOBO 교보생명

(교보생명 2004년 TV-CM 최민식편 카피)

배우 최민식이 모델인데 그의 눈빛과 표정, 손짓과 서글픈 웃음소리가 백 마디의 대사를 대신하고 있다. 괜찮지? 괜찮을 거야. 다 지나갈 거야,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광고 속 최민식 같은 친구가 있다면, 친구의 공감과 사랑, 위로가 있다면 어떤 인생의 쓴맛이 닥쳐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시련이 닥쳐도 소중한 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는가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한 달에 두어 번 트레킹을 한다. 대만 광고 속 노인들처럼 80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심장이 약한 친구도 있고, 암수술을 한 친구도 있고, 관절염을 얻은 친구도 있어서 험한 산은 가지 않고 주로 시내나 근교의 둘레길을 걷는다.

아무리 낮은 산엘 가도 걷다 보면 마루가 편안한 정자가 있다. 높고 낮은 산과 길에 다정하게 기다리고 있는 정자만 보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걷다가 정자를 만나면 우리는 주섬주섬 배낭에 넣어 온 먹거리를 꺼내서 상을 차린다. 오이와 사과, 오렌지, 딸기,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과 야채는 기본이고 대보름이 있는 주에는 오크밥에 나물이 나오고, 과메기 철에는 과메기가 파, 김과 함께 등장한다. 아침부터 직접 부친 부침개와 도토리묵을 꺼내는 친구도 있고,

주먹밥이나 김밥, 유부초밥을 돌리는 친구도 있다. 말갭게 껍질까지 까서 담아 온 삶은 계란을 입에 넣어주기도 한다. 배푼는 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라도 더 먹고 싶어서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었던 것이다.

불을 피워도 되는 곳에서는 먹거리가 더욱 다양해진다. 겨울에는 매생이 굴국이나 오뎡탕, 시래기 된장국이 끓는다. 불고기는 지글지글 익고, 반을 갈라 하트 모양을 낸 쏘시지는 러브러브 구워진다. 배부르게 먹은 뒤에도 꼭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배불러 죽겠다고 엄살을 떨면서도 다들 젓가락을 들고 라면 냄비 앞으로 몰려든다.



둘레길 트레킹의 먹거리들

시답지 않은 말 한마디에 다들 크게 소리 내서 웃는다. 집이나 사회에서는 주로 심각한 표정이나 무표정으로 지내는데, 친구들과 먹을 것을 앞에 두고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까르르 웃어댄다. 웃으면서 먹을 것을 정리하고 쓰레기 담은 봉투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시 길을 걷는다. 둘레길이라고는 해도 오르락 내리락 숨찬 구간도 있다. 힘들다고 투덜대는 친구가 생긴다.

“아이고 힘들어. 내려올 걸 뭐 하러 올라가냐, 그냥 택시 불러 타고 돌아가자.”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 니가 아직 인생의 쓴맛을 안 봤구나?”

“그럴 리가 있어? 쓴맛이라면 어디 가도 빠지지 않지.”

“너희들이 인생의 쓴맛을 안다고? 우리 언제 날 잡아서 인생 쓴맛 배틀할까?”

맞는 말이다. 오십 몇 해씩 사는 동안 힘든 일 겪지 않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저마다 특별한 쓴맛을 몇 개씩은 견뎠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험하지 않은 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그보다 더하거나 덜한 나의 어려움을 들을 얘기한다.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데 저절로 위로를 받는다. 인생의 별의 별 고비에서 주저 앞지 않고 일어나 친구들을 만나서 먹고 웃고 걸을 수 있으니 참 다행인 인생이지 싶다.

농담처럼 친구들과 이야기 한다.

“우리 나중엔 전부 한 동네 모여 살자.”

“요양원 들어가지 말고 방 하나씩 가지고 부엌이랑 거실 공유하는 공동 주택 만들자.”

“그거 좋다. 르 꼬르뷔지에도 말년엔 겨우 4평짜리 오두막에서 지냈대. 각자 방 4평이면 충분해.”

“난 거기서 사감 할래.”

“요리사는 충분하니 난 먹기만 한다.”

중년의 우리들을 웃게 하는 실현 가능한 꿈이다.

대만 대중은행 광고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묻고 꿈을 위해 산다고 답했다. 교보생명의 광고는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지키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꿈은 혼자서 지키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과 친구의 사랑과 우정, 함께함이 있어야 가능하다. 친구들과 트레킹을 하며 나는 조금 다른 질문을 떠올린다.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는가’, ‘무엇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가’라는 질문.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하는가?

무엇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가?

내가 찾은 답은 사랑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8C-q0w4C_4(대만 대중은행 2011년 TV-CM 유튜브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tQGDAFq1u4>(교보생명 2004년 TV-CM 최민식편유튜브링크)